

교회소식

- 2019 단기선교
 - 일정/장소: 2월18일(월) - 22일(금) / 혼두라스 라스플로레스
 - 오늘 친교 후, 소예배실에서 선교팀 모임을 갖습니다.
 - 단기선교 전단지(일정, 선교팀 명단, 기도제목, 도와주실 일들)가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부씩 가져가셔서 **기도로 참여해주세요.**
 - 2월 16일(토)에 짐을 챙니다. 단기선교팀은 오전 9시까지 교회로 모여주세요.
 - 선교와 단기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손만두를 예배 후 친교실에서 판매합니다. (각 \$20)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야채 8팩/고기 22팩) 서둘러 구입해 주세요.
- 교회 주소록을 만들기 위해 가족 사진이 필요합니다.
예배 후 미디어팀이 촬영합니다.
- 재정부
 - 2018년 세무보고, 현금내역표, 결산안, 2019년 예산안이 현금함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한 가정당 한 부씩만 가져가시고 **절대 교회에 남겨두고 가지 마시고, 꼭 집으로 챙겨가십시오.**
 - 예결산 공동의회: 2월17일(주) 예배 후 본당
- 장로 투표 공동의회
 - 3월10일(주) 예배 후 본당
 - 후보자: 김동수, 서영수
 - 선출이 확정되면 장로임직식을 3월31일(주일)에 가질 예정입니다.

섬기는 사람들

2월 안내: 신미라 권사
다음 주 대표기도: 김은영 집사 (시 1)
이번 주 친교: 강승연 집사, 임수연 집사
다음 주 친교: 노미라 집사, 송은주 집사

기도

"영혼이 잘 됨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심령에 들려 열매 맺는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고 담대하게 선하신 뜻을 구하는 기도
"범사에 강건하기를": 교제와 양육이 풍성해지도록
성도 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거룩과 성령충만, 지혜와 은사, 강건함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제19권 5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예 배 안 내		주 일 학 교	
English Service	10am / Sanctuary	유치부	12pm / 유치부실
주일 예배	12pm / 본당	유년부	12pm / 유년부실
금요 기도회	8pm / 본당	중·고등부	12pm / 소예배실
토요 새벽기도	6am / 본당		

성경공부 및 모임

성경공부 여성반 수 10am / 소회의실
(3월개강) 가족반 목 8pm / 대회의실
 남성반 토 7:30am / 소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소예배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교 역 자

담임목사: 이민영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교육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060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2019년 표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사 43:19)

English Service

<10a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 -----	"All Who Are Thirsty" -----	Together
*Call to Worship -----		Together
*Worship & Praise -----		Together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Apostle's Creed -----		Together
Offering Prayer -----		Leader
Word of God-----	John 21:15-19 -----	Pastor Kim
Sermon-----	"He Who Began a Good Work" -----	Pastor Kim
Intercessory Prayer -----		Leader
*Benediction -----		Rev. Lee

주일 예배

<오후12시>		
*입례찬송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다함께
Opening Hymn	Blessed the Lord, O my soul	
*경배와 찬양 -----		다함께
Worship & Praise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266장(통200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	다함께
Hymn	O Now I See the Cleansing Wave	
대표기도 -----	시편 138 -----	김현정 권사
Prayer	Psalm 138	
찬양 -----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	세광 찬양대
Anthem		Sekwang Choi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이사야 6:1-7 -----	인도자
Word of God	Isaiah 6:1-7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s		
설교 -----	"어둠 속에 비친 영광" -----	이민영 목사
Sermon		
*찬송 -----	516장(통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	다함께
Hymn	We've a Story to Tell to the Nations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말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이사야 40:27-31

"앙모"한다는 것은 올려다 보면 사모하여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앙모는 올려다 보는 것입니다. 떨겼던 눈을 들어 높으신 주님을 뵈옵고, 닫힌 맘을 열어 크신 주를 모시며, 움켜쥔 손을 놓고 영원하신 팔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높아지고 커지고 부해지면 영광인줄 압니다. 그러나 진짜 영광은 높으신 주님 앞에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고 크신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넓으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눈을 들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눈앞의 형편만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데까지, 내 힘이 닿는데까지만 보고 자기 길이 하나님께 가리워졌다고,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신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27절). "너희는 눈을 들어..."(26절). 높으신 그를 보면 내가 작아지지만 주님의 공의로우신 섭리와 크신 은혜가 보입니다. 나의 눈이 높고 나의 힘으로 쌓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알게 됩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높으신 주님을 뵈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감동스런 노래와 예식과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많은 예물, 정성스런 노래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높으신 주님을 뵙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받으실만한 예배가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은혜보다, 내가 드리는 정성보다 주님이 높아지실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앙모는 또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미련하고, 피곤하여도 주님은 명철이 한이 없고 피곤치 않으시기에 기다리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감춰졌다고 주님이 숨은 게 아니고, 우리가 모른다고 주님도 대책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곤하다고 주님도 피곤한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모르고 피곤할 때 우리의 명철과 힘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여 오직 믿음 밖에는 견딜 힘이 없을 때 오히려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참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냉놓고 기다리는 무책임한 방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과 약속대로, 주님의 뜻과 능력대로 이루시라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대로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틀림없는 주님의 뜻입니다.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연약한 우리를 도와 부르짖으며 기도하십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오랜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을 고치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이 높고 명철하시며 잊지 않으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이란 무슨 초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안고 간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자기 힘으로 걸어서 못갑니다. 죽어야 갑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이 다른 곳에서 주님의 은혜로 갑니다. 지금 피곤하십니까? 넘어졌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높으신 주님을 뵈울 때입니다. 사모하며 그 은혜를 기다릴 때입니다. 주님의 팔이 나타날 때입니다.

Memo